

남북한 문학을 하나의 비평 공간에서 살펴본 오태호(문학) 교수의 『경계를 넘는 상상력』이 출간됐다. 20여 년간 남북한 문학을 연구해 온 오 교수는 26편의 서평을 통해 분단의 역사와 동시대 주인의 삶,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한다.



우리신문은 이번호부터 과거 보도했던 사안들이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되짚어보는 A/S 기획을 연재한다. 첫 번째로 매해 거론되는 흡연구역 문제를 둘러싼 학교의 그간 대응을 돌아보고, 여전히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대학주보

대학가 흔드는 보증금 미반환...“내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요”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최근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일 임대인의 건물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 피해를 입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아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 계약 끝나도 못 받은 보증금

임대사업자 이 씨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해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 이 씨가 보유한 300여 개의 부동산

산 중 아파트 165채와 오피스텔 11채가 동대문구에 있다. 학교 인근 공인중개사 S씨에 따르면 최근 금리가 올라 이 씨의 임대사업이 어려워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피해를 입은 우리학교 학생은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신문은 이 중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피해자 A 씨는 서울시립대 인근 이 씨 소유의 오피스텔 원룸을 보증금 7,00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이 끝나자 이 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반환을 계속해서 미뤘다. 약 1년 7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3면에 계속 →



최근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후마 15년, ‘다음’을 묻는다 “초기 철학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학기부터 창간 7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를 연재하고 있다. 이미 총 4회차에 걸쳐 ① 학생들이 바라보는 후마 ② 교수들이 바라보는 후마 ③ 후마 설립 당시의 철학과 현재(조인원 이사장 대담) ④ 후마의 정체성 위기를 주제로 기사를 발행했다. 이번 학기엔 ‘강의 운영·교수법’, ‘교육 과정 개편’, ‘평가방식’, ‘거버넌스·양캠프 소통’, ‘인력·재정 문제’를 주제로 지난 학기에 확인한 후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학생·교수 공동된 문제의식 ‘무너지는 후마 정체성’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국내에서는 최초의 독립 교양교육기구로 주목받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학생들의 인지도와 이해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취재를 종합했을 때 후마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평가와 교수·과목별 수업 편차, 일방향의 강의식 수업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설립 당시의

교육철학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는 이유다.

교수 인식조사에선 82.5%가 제도와 운영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출범 초기와 비교해 예산과 교수진 지원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렵고 새로운 교수자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양캠프를 통합적으로 이끌 대학장과 정기 협의체가 부재해 캠퍼스 간 소통과 협력이 약화된 것을 확인했다. 절대평가 전환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갈등이 드러났다.

사유의 깊이를 키우는 교육 설립 이후 성과와 한계 돌아볼 때

총장 재임시절 후마 설립자였던 조인원 이사장은 “후마의 출발점은 ‘학문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마는 전공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사유와 인식의 깊이를 키우고, 이론과 실질을 연결하는 공동 학습의 장으로 설계

됐다고 회고했다.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해 설립 정신을 계승하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상상과 통찰의 지평을 넓히는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후마가 기존의 교양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학교와 후마가 설립 이후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교수 역시 “후마가 초창기의 교육철학을 계승하면서도 변화한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조 이사장과 일맥상통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과정·강의·평가방식 등 앞으로의 후마를 묻다

이번 학기부터 이어서 연재하는 주제들은 지난 학기 특별기획을 통해 드러난 후마의 문제점 중 우리신문이 핵심으로 꼽은 것들이다. 교육과정이 시대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토론과 참여를 강조하는 후마의 교육철학에 맞는 강의와 교수법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절대

평가와 상대평가만을 비교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후마 교육에 적합한 평가방식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양캠프 소통 현황과 의사결정 구조를 짚는다. 마지막으로 후마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 여건까지 살펴보면 후마가 설립 당시의 교육철학을 계승하면서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한다.

김진상 총장은 지난 6월 교내 언론4사와의 간담회에서 “후마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교양교육이라는 본질을 더 분명히 하면서도 본질을 시대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마니타스의 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후마가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교육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찰과 개편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 15년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후마를 함께 그려나가는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 위한 기획 기사다. <관련기사 6~7면>

2 종합

확대되는 병행 수업, 온라인 강의 관리 · 공백 우려 ‘블랜디드’ 확대 맞춰 별도 품질관리 체계 필요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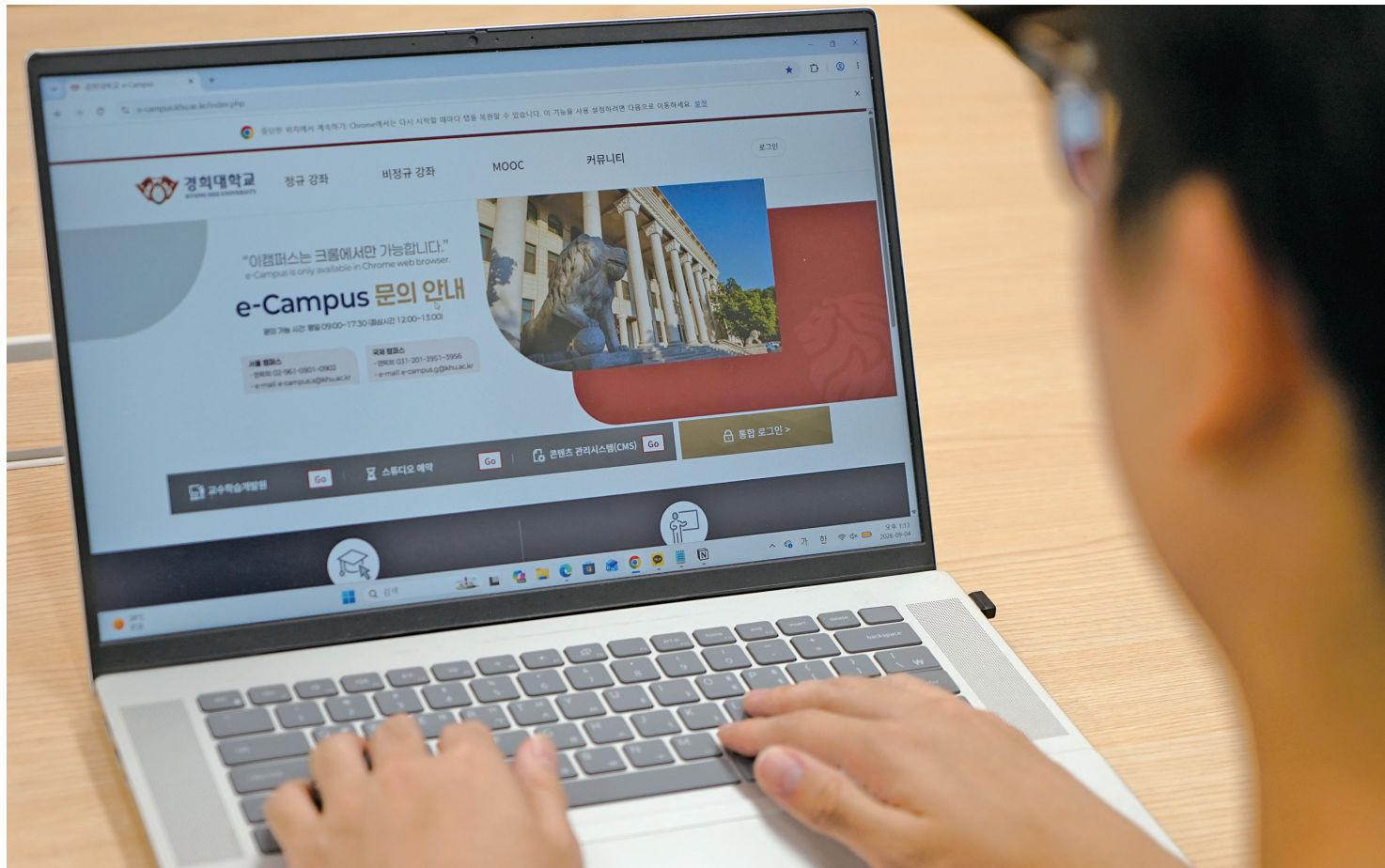
“교수님이 몇 년째 기침을 하고 계세요”

박윤범(사회학 2025) 씨는 지난 학기 블랜디드 수업을 수강하며 겪은 불편을 토로했다. 블랜디드 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의 30% 이상 50% 이하가 원격으로 이뤄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박 씨는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침을 하시고, 교수님 목소리까지 작아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지도 않는다”며 “강의를 보면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전 강의가 바뀌지 않아 선배들도 겪었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학기 블랜디드 전공 교과목을 재수강한 A 씨는 “이전에 수강했을 때와 강의 영상과 퀴즈가 완전히 같아 당황스러웠다”며 “흔히 말하는 족보가 없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효율성이나, 시의성이나
재사용 자체가 질 저하는 아냐

온라인 강의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배경에는 제작의 효율성이 있다. 윤정미(교육학) 교수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는 제작하는 데 시간과 비용, 인력의 수고가 적지 않게 든다”며 “이미 잘 제작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만의 사회학’을 운영하는 박승준(약리학) 교수는 “대학 입장에서 온라인 강의 확충이 학생들의 수강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며 “다만 단순히 수강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콘텐츠 재사용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때다. 학생들이 직접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토폴로지 강의평가에도 현재까지 강의 콘텐츠의 시의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교수학습개발원 지상현(지리학) 전 원장은 “원론적인 기초학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념적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첨단 IT나 사회과학 분야는 해마다 최신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 역시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내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가빈 기자)

“설명하는 원리는 그대로여도 사용한 예시나 데이터, 영상의 품질, 그리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처한 교육 여건은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말했다. ‘여성학개론’을 운영하는 엄혜진(여성학) 교수는 “녹화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교강사가 시의성 없는 예전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건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온라인 강의 재사용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리학교는 ‘원격수업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원관위)가 콘텐츠 신규 제작 완료일 또는 최종 수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강의 콘텐츠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재제작을 안내한다. 매 학기 원격수업 개발·선정 및 개설 심의를 진행하며 ▲원격수업의 필요성 ▲콘텐츠 개발 시기 ▲제작 방식 등을 토대로 심의한다.

다만 원관위의 관리 대상은 전체 수업의 70% 이상이 비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원격강좌’에 한정된다. 블랜디드·하이브리드와 같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은 교무처

소관으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다. 하지만 해당 수업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학사지원팀은 “현재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블랜디드 수업 내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별도의 심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학 차원의 별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인간의 가치 탐색’을 수강한 B 씨는 “강의계획서에는 대면 강의라고 적혀 있는데 플립러닝식(온라인 선행 학습)으로 운영됐다”며 “영상이 너무 예전 것이고 화질도 안 좋아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은 “대면 수업 내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담당 교강사가 관리하며, 대학에서는 매 학기 강의 자료의 업데이트 및 최신화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너머
새로운 교육을 고민할 때

우리학교는 지난해 다전공 의무화에 따른 수강 수요 증가와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학사지원팀은 “향후 병행 수업이 확대되어 별도 기준이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 전 원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은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중대형 강의는 온라인 교육 환경의 특성을 살려 캠퍼스 간 경계를 허물고 고품질 콘텐츠의 ‘One Source Multi-Use’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강의는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과 토론,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엄 교수 역시 온·오프라인 수업을 무조건 대체 관계로 보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엄 교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두 방식을 어떻게 결합할 것

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강의를 대체하는 형태로만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융합형 교육에서는 여러 전공의 학생이 공유해야 할 기초·공통 지식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고, 비판적 사고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처럼 깊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습은 대면 수업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눌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사령

면 〈서울 기획·보도팀장〉
이환희(미디어학 2021)
〈지역사회팀장〉
원희재(원자력공학 2021)

명 〈서울 대학정책팀장〉
서라수(사회학 2025)
〈국제 대학정책팀장〉
도은오(응용수학 2025)
〈기획팀장〉
이서현(미디어학 2024)
〈사회팀장〉
김가빈(미디어학 2024)
〈문화팀장〉
김민영(미디어학 2025)

1면에서 계속 →

A씨는 “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했다”며 “대출 연장과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크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B 씨 역시 같은 오피스텔에서 4년간 거주하며 보증금 1억 원을 맡겼다. B 씨는 퇴거를 앞두고 이 씨로부터 “5개월 후에 반환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협의를 통해 다음 달 반환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B 씨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C 중개업소의 말을 믿었지만 반환이 계속 미뤄졌다”며 “끈질기게 독촉한 끝에 퇴거 후 4개월 만에 분할해 겨우 전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자 D 씨는 이문동에 위치한 이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거주했다. 퇴거를 앞두고 D 씨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C 중개업소는 청소 등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새 세입자 입주 전 반환될 것”이라 설득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까지 보증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D 씨는 이 씨와 중개업소에게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여러 차례 나눠 받아 전액 회수했다. D 씨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계속 신경이 쓰였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전했다.

신탁등기의 위험성
공인중개사 고지 의무 부실

다수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씨의 건물은 신탁등기로 돼 있다. 신탁등기란 집주인이 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는 제도다.

문제는 신탁등기가 이뤄지면 법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신탁회사(수탁자)나 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

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특약에는 신탁회사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배제된 경우가 많다.

이문동 소재 한 중개업소는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수탁자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결국 임차인이 이 씨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사가 세입자에게 특약과 리스크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탁 매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지적했다.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권오상(법학)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중개할 때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그 법적 의미 및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 역시 손해배상을 진다”고 말했다.

다수의 피해자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S 씨는 “자신이 중개한 거래 가운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가 약 3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씨가 현재 새 건물로 대출도 받고 회전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씨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되풀이되는 보증금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 중요

전문가들은 계약 전후 단계별로 학생들이 쟁겨야 할 사항들을 조언했다.

먼저 계약 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고려대 법전원 김제완(법학) 교수는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일 당일 최소 두 차례는 확인해야 한다”며 “갑구에

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을구에서 선순위 담보금액이 초과돼 있지 않은지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태도도 살펴봐야 한다. 류두원(경영학) 교수는 “임대인이 학생이라고 알보는 태도를 보이면 계약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소송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며 “승소하면 법정이자와 소송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우리신문이 보도했던 이 씨와 비슷한 사례에서도 최근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우리학교 학생도 포함돼/대학주보 1722/2024.05.14.) 임대인 김 씨 역시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보증금을 돌려막았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지난 달 27일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징역 12년을 부과했다.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0월 착공

주말 오전 외부 대관 · 학생 이용 제한

곽승윤 기자 ksymickey05@khu.ac.kr

【국제】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 오는 10월 중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하계방학 중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용인시와의 시설 이용 조건 협의가 이어지며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학교와 용인시, 지역 체육계 관계자 간 협의에서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며 사업 추진에 물꼬가 났다. 학교 측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설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우리학교는 경기도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대운동장을 인조잔디 구장과 러닝 트랙을 갖춘 시설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황량한 국제캠 대운동장,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뀐다/2026.04.14.) 당초 학교는 방학 중 공사를 진행해 2학기부터 구성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선정 이후 시설 이용 조건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최종 협약 체결이 지연됐다. 주요 쟁점은 지역 생활체육인의 시설 이용 방식이었다.

용인시는 시 소속 축구 동호회의 주말 오전 운동장 이용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지역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한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단체에 정해진 시간대의 이용을 보장할 경우 학생과 일반 이용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의가 지연돼 왔다.

이에 학교는 사업 추진 자체를 내부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사업을 추진하되, 학교 행사·축구부 훈련 및 경기 등 주요 일정에는 외부 단체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총무관리처 시설운영팀 유중근 팀장은 “내부적으로도 본 사업 시행 여부에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사업을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7억원의 외부 지원을 포기할 경우 대운동장 개보수가 언제 다시 가능할지 미지수였기 때문에 용인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절충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용인시와 학교, 지역 체육계가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일 용인시의회에서 대운동장 개방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렸다.

용인시 임현수 시의원은 “본 사업은 예산 지원을 통해 용인시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함이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용인시민인지 검증이 불가하다”며 “축구 동호회와

같이 용인시를 통해 검증된 협회에 가입된 팀을 우선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논의 끝에 시설 이용 조건은 요일에 상관없이 18시부터 22시까지 시민에게 무료 개방되며, 주말과 공휴일 6시부터 12시까지 용인시 생활체육 동호회가 대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관료는 시간 당 25,000원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매주 주말 및 공휴일 해당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주말 및 휴일 오전 이용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단위로 외부 대관이 불가능한 날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유 팀장은 “축구부 훈련이나 대동제 등 학생들을 위한 공식 일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해당 시간에는 외부 단체의 대관을 제한 할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이용 조건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인조잔디 구장의 운영·개방에 관한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며, 전체 협약 기간은 인조잔디 구장의 수명을 고려해 8년으로 설정됐다. 구장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는 안전 문제로 이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용인시와 계약 유지 여부 등을 다시 협의하게 된다. 인조잔디 조성 사업은 향후 최종 협약 체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유 팀장은 “날씨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빠르면 10월 중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조성될 예정이나, 주말 및 휴일 오전에는 용인시 생활체육 동호회의 대관으로 학생들이 운동장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대학주보 DB)

4 종합



학생들의 목소리가 편제개편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 = 대학주보DB)

소용대 3개 학과 AI컴퓨팅학부로 개편 추진 뒤늦은 개편안 통보에 학생사회 반발

김수인 기자 windsnow07@khu.ac.kr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용대)이 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시점은 2028학년도다. AI 중심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 3개 학과를 ‘AI컴퓨팅학부’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학교 측은 전공 선택권 확대와 교육 효율성을 기대하지만, 개편안이 학생들에게 뒤늦게 통보되며 소통의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번 개편의 추진 배경을 짚어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와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전공 선택권 확대와 AI 교육 강화 소용대 편제개편 추진

소용대는 오는 2028년부터 기존 3개 학과(컴퓨터공학·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를 ‘AI컴퓨팅학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열린 ‘2028학년도 소용대 편

제개편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개편안이 제안됐다.

이에 따르면 입학생은 학부로 통합 입학한 뒤 기초학문분야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응용학문분야 ▲AI융합보안 ▲로봇지능 ▲게임-인터랙티브컴퓨팅 6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관련기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편제개편 공청회... ‘인공지능융합대학 AI컴퓨팅학부’ 체제 제안/2026.08.26.)

학교 측이 설명하는 통합의 핵심 배경은 ‘운영 효율성’과 ‘전공 선택권 확대’다. 학과별로 분리됐던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하나로 묶어 중복된 교육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학생이 입학 이후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논의는 지난 겨울 소용대 교수진 워크숍에서부터 시작됐다. 소용대 이승규(컴퓨터공학) 부학장은 “단과대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의 사례와 사업을 살펴보면 소용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배경에는 2027년 ‘AI 중심대학 사업’ 선정이 자리하고 있다. 조진성 AI·SW교육단장은 공청회에서 “사업 선정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AI 중심 교육체계와 조직을 선제적으로 갖춰 사업 계획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선정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계획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학과 간 경계를 허물며 각 전공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았다. 이 부학장은 “6개 세부 전공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특정 전공을 이수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필수 교과목이나 커리큘럼 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공지로 접한 개편안 아쉬움 남긴 ‘사전 소통’

학생들 사이에선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의견 수렴이 부재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들은 지난 4일 소용대 학생회가 SNS에 게시

한 ‘단과대학 편제개편 관련 재학생 의견 청취 조사’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처음 접했다.

이우석(컴퓨터공학 2025) 씨는 “학생회 인스타그램을 보고 개편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사실상 형식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박정식(컴퓨터공학 2023) 씨는 지난 5일 ‘컴퓨터공학은 AI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개인 SNS와 학내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그는 “학문적 정체성이 학과명 하나로 손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안건이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학생회 공지를 통해 처음 접했고, 그 전까지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학장도 학생들과의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했다. 그는 “학생들이 편제개편에 대한 교감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3개 학과를 ‘AI컴퓨팅학부’로 통합하는 내용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서준영(컴퓨터공학 2025) 씨는 “입학 당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오기 위해 다른 학교도 포기했다”며 “학과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학교 측 “학생 의견 반영 검토” 의견 수렴 절차가 관건

학교 측은 향후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컴퓨팅학부 명칭과 관련해 조 단장은 공청회에서 학생회가 후보 명칭을 제안하면 교수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조 단장은 “학생회에서 명칭을 5개 정도 추려 오면 반영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 역시 “아직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에 학생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명칭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요구는 비단 학부 명칭 후보를 제시할 기회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졸업장에 찍히는 명칭’에 대한 우려가 크다. ‘AI컴퓨팅학부’, ‘인공지능융합대학’처럼 AI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명칭은 실제로 배운 학문적 내용을 피력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이는 향후 취업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씨는 “졸업장에 세부 전공 대신 포괄적인 학부 이름만 찍힌다면, 내가 어떤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씨 또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은 학과명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 설명해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학과에는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학장은 “통합 이후에도 졸업증서에 세부 전공이 함께 표기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마이크로디그리나 전공별 필수 커리큘럼 이수 내역을 통해 학생의 전문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니며, 공식적인 학칙 개정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향후 학생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 개편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노천극장 주차장에 개방형 흡연부스가 설치됐다.

(사진=서라수 기자)

서울캠은 부스 설치 시작 국제캠은 소관 분산, 흡연 부스 설치 계획 없어

김수인 기자 windsnow07@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학교와 학생 사회를 둘러싼 문제는 보도 이후에도 계속된다. 우리 신문은 이번 호부터 과거 보도했던 사안들의 개선 현황을 짚어보는 ‘A/S 기획’을 연재한다. 첫 번째로 캠퍼스 흡연 구역 관리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다. (관련기사: 금연 구역 흡연 사례 민원 늘어/대학주보 1698호/2023.03.13.)

서울, “대책 마련” 4년 전 약속 일부 구역에 흡연 부스 첫 설치

2023년 보도 당시 서울캠의 공식 흡연 구역은 ▲대운동장 ▲생활과학대학 임간교실 앞 ▲노천극장 주차장 ▲구 이과대학 동관 뒤 ▲미술대학 앞 ▲의과대학 앞이었다. 현재는 ▲대운동장 ▲노천극장 주차장 ▲구 의과대학 동관 후면 ▲생활과학대학 임간교실 앞 ▲삼의원 창업센터로 총 5곳으로 줄었다. 캠퍼스 내 모든 건축물과 교정은 원칙적으

로 금연 구역이지만 해당 구역은 흡연자들을 고려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됐다.

흡연 구역은 일부 바뀌었지만 문제로 지적됐던 금연 구역 내 흡연과 간접흡연 민원은 그대로다. 당시 서울캠에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다. 현재 금연 구역인 행복기숙사 앞 벤치는 사실상 학내 주요 흡연 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음악대학 앞 벤치나 푸른솔문화관 유치원 맞은 편에서도 상습 흡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단과대는 종이 안내판을 급조해 붙이거나 보건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캠 총무팀은 “캠퍼스가 사방으로 개방됐기 때문에 어느 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민원이 발생해 난항”이라며 “각 단과대에 매년 금연 협조 안내를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기존에 없던 흡연부스가 일부 구역에 새로 마련됐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흡연 부스 설치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지난달 31일 노천극장 주차장과 미술대학 인근에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서울캠 총학 관리안전처 강명주(무역학 2024) 처장은 “조속한 설치와 흡연 구역의 명확한 분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방형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제, 관리 주체 제각각 단과대 행정실 지정·관리

국제캠의 경우 흡연 구역의 운영

및 관리 주체조차 불분명하다. 서울캠의 흡연 구역은 총무팀이 일괄 관리하는 반면, 국제캠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공식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각 단과대의 행정실이나 학생회 차원에서 공식 흡연 구역을 임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정원과 전자정보대학은 학생들이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자 행정실에서 해당 장소에 흡연 구역 임시 표지판을 붙였다. 외국어대학 역시 학생회



흡연 구역 표시가 되지 않은 예대대 앞 공터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수인 기자)

의 요청으로 외대 정문 옆 벤치 공간을 흡연 구역으로 임시 지정했다.

체육대학(체대), 국제대학(국제대), 예술디자인대학, 공과대학, 제2기숙사는 각 행정실이 흡연 구역을 지정해 자체 관리 중이다. 체대는 정문 양쪽에서 모두 흡연이 이뤄지지만 오른쪽만 공식 구역으로 지정돼 혼선을 빚고 있다.

국제대는 지난해 학생회의 요청으로 건물 뒤편에 흡연 구역 안내 표시를 부착했다. 제2기숙사는 자전거 보관소 구역에 표시돼 있던 흡연 구역 표시가 바래져 2024년 새로 페인트칠했으나, 현재 다시 흐려진 상태다. 생명과학대학은 과거 임시 흡연 구역이 지정될 당시 근무했던 행정실 직원들이 모두 교체돼 과거 지정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캠 관리팀 김홍을 팀장 “흡연 구역 관리는 관리팀이 아닌 총무팀 소관”이라며 “청소는 관리팀이 하지만 설치 및 운영 전반은 총무팀에 확인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캠 총무팀 측은 “흡연 구역은 단과대학이 자체 지정하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캠 관리팀 신희석 주임은 “흡연 구역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흡연 부스 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관 해친다”던 흡연 부스 타 대학은 오히려 “미관 개선”

서울캠 총무팀 측은 미관상 이유와 흡연 부스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흡연 부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무팀은 “흡연 부스는 미관을 저해하기도 하고 만들어도 흡연자들이 냄새가 밴다는 이유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앞까지 나와서 피울 것”이라며 “현재도 정해진 흡연 구역인 생활과학대학 온실 앞이 아닌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흡연 부스를 도입한 타 대학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교내 9곳에 개방형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립대 안전관리팀 최가연 주무관은 “흡연 부스 도입 후 인식 개선과 홍보가 이뤄져 부스에서 흡연하는 경향이 정착됐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 역시 2018년 교내 10곳에 냉난방기, 환기시설, 멀티미디어 스크린 등이 마련된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단국대 총무팀 김용찬 팀장은 “흡연 부스 설치 후 담배꽂초 처리 등 주변 환경 개선과 캠퍼스 미관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6 기획

같은 교과, 다른 강의실...공통된 교육의 질 담보해야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⑤교수·과목별 편차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典範: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이번 2부 1회차에선 학생들이 후마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교수·과목별 편차’를 다룬다.

65.2% “교수·과목별 편차 커”
초기엔 매주 수업한 함께 논의

지난 5월 우리신문이 대량메일 시스템을 통해 2학년 이상 재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후마 수업의 문제점을 묻은 결과, 65.2%가 ‘교수·과목별 편차’를 꼽았다.

해당 문제의식은 필수교양 과목에서 비롯됐다. 전체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인 만큼 하나의 교과를 여러 교수자가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마 출범 초기에는 같은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수업 내용과 교수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후마 김진해(국어국문학) 부학장은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 개설 초기 교수들이 방학마다 매주 모여 교재의 각 장을 공부했다”고 회고했다. 한 교수가 자신이 맡은 장을 어떻게 가르칠지 발표하면 다른 교수자들이 평가와 조언을 주는 방식이었다.

김 부학장은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챕터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평가나 조언을 주기도 했다”며 “이를 통해 필수교과의 ‘질적인 공통성’을 찾는 체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이러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학장은 교수 간 교류가 2011년부터 약 3~4년 동안만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전임 학장 또한 “출범 초기에는 토요일마다 거의 매주 워크숍을 열고 참여 교수자에게 식사와 일정 비용을 지원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약 3년 뒤부터 관련 예산이 줄면서 초기처럼 자주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멀티미디어관에서 국제캠 인문중핵교과 교수자 워크숍이 열렸다.

(사진 = 권도연 기자)

정원 줄이고 분반 늘린 재도약
더욱 중요해진 교수 간 소통

2014년은 대학이 지출예산 합리화를 위해 전 부서에 걸쳐 예산을 삭감한 시기다. 후마는 당시 ‘행·재정 발전계획안’의 후마 개설 강좌 조정안에 따라 강좌 수를 줄였다. 그 결과 개설 강좌는 전년도보다 총 208개 감소했다.

하지만 줄여든 강좌 수를 보완하기 위해 강좌별 최대 수강인원을 늘리면서 대형강의는 오히려 증가했다. 100명 이상 서울캠 배분·자유이수 강좌가 3개에서 58개로 급증했을 정도였다. 교수들은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의 세부 조정안은 한 강좌의 수강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2015학년도 2학기에는 100명 이상 대형강의를 최대한 개설하지 않는 대신 일반 강의 정원을 5~10명가량 늘렸고, 2018학년도에는 중핵교과 정원을 45명에서 35명으로 낮췄다. 당시 후마는 “대형

강의를 줄이고 소형강좌를 늘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했다. 2019년에는 분반의 규모도 조정했다.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제외한 필수교과의 강좌당 수강정원을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분반을 확대했다.

분반 확대는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하나의 교과 목표와 수업 방향을 교수자들이 실현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이전 학장은 “2019년 당시 PD 교수와 담당 교수자들이 학기 초와 학기 중 워크숍을 열어 수업방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범 초기와 같은 빈도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이전 학장은 “동일한 교과를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자들이 담당하는 만큼 수업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이 줄어 많이 못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뤄지는 워크숍
공통된 교육의 질 담보하려면

현재도 교과별 교수자 협의는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세계와시민교

수자들은 매학기 워크숍을 열어 강의 사례와 교수법을 공유한다. 김성일(사회학) 교수는 워크숍에서 다른 수업 사례를 들으며 “저 방식과 내용은 내 수업에서도 적용해 봐야지”해서 서로 배워가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수업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 각 교수자가 자신의 사례를 공개하고 다른 교수자가 이를 자신의 수업에 가져가는 방식이다.

지난 2일에는 국제캠 인문중핵교과 교수자 워크숍이 열리기도 했다. 국제캠 인가탐 PD 이진오(철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소통과 토론이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더불어 반복적인 피드백·학생 간 상호평가·상담 등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과 교수자 간 연대·소통은 출범 초기보다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과목별 편차’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현재 워크숍 운영 방식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는 선생님들이 각출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는 “발표자에게 소정의 발표비를 지급하고 식사하며 논의를 이어갈 정도의 지원이 있다면 교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후마 차원의 교수자 워크숍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학장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교수자간 연대감과 내부 결속이 약해진 것도 있다”고 함께 짚었다. 다만 워크숍이 활성화 되더라도 분반별 ‘공통의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워크숍 지원과 함께 각 분반에서 공통 교육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학장은 “개인별 교수자의 교수법을 확인하는 통로가 조금 부족하다”며 “교과별로 공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성공적이나 실패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강의실”이라며 교수자의 교수법 점검과 개선도 강조했다.

같은 인가탐 방식 달라도 “생각 표현할 기회 있었으면”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2024학년도 1학기 ‘인간의가치탐색(인가탐)’을 수강한 박세은(미디어학 2023) 씨와 이경빈(스페인어학 2023) 씨, 백민철(미디어학 2024) 씨는 같은 학기 같은 필수교과를 들었지만 수업에서 경험한 강의와 토론의 비중은 달랐다.

같은 학기 같은 교과 수업의 무게중심은 달랐다

박 씨가 수강한 S37분반은 교수 설명이 중심이었다. 철학자의 생애와 주요 철학적 담론을 교수가 설명하고 학생에게 생각할 주제를 던지는 방식이었다. 박 씨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많아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학기 이 씨가 수강한 G42 분반에서는 토론과 발표의 비중이 컸다. 이 씨는 “교수님의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됐다”며 “자신의 생각을 부담 없이 표현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수업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토론은 매주 약 15~20분씩 진행됐다. 학기 초 구성된 3~4명 규모의 조에서 의견을 나눈 뒤 토론보고서를 제출하고 조별 대표가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같은 학기 S34분반을 수강한 백 씨는 “교재에서 읽어서 내용을 정리하면 교수자가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짧은 소그룹 토론을 병행했다”며 “시험은 수업 진도를 바탕으로 한 암기형식이었다”고 기억했다. 또 “개별 피드백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험부터 개별 피드백까지 분반마다 달랐던 평가 경험

평가와 피드백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박 씨의 분반에서는 중간 지필고사와 개별 발표, 기말 대체과제가 진행됐다. 중간고사는 수업에서 다룬 책과 철학자의 내용을 묻는 주관식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기말은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 탐구한 내용을 PPT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씨는 기말과제를 준비하면서 주제 선정에 대해 한 차례 서면 피드백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씨는 “발표나 기말과제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수업 전후로 교수자에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 씨의 분반에서는 중간고사를 글쓰기 과제로 대체했고 기말고사는 논술형으로 진행됐다. 토론과 발표도 평가에 반영됐다. 중간고사 대체 글쓰기는 희망 학생에 한해 개별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단순히 글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셨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2학기 S00 분반을 수강한 김명은(회계세무학 2024) 씨는 “교수자 강의, 팀별 토론, 발표 순으로 수업이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피드백은 없었다”고 기억했다. 평가는 중간·기말시험과 발표가 포함됐다.

방식은 달라도 “생각 표현할 기회 있었으면”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수업방식을 모든 분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담당 교수가 달라도 공통적으로 경험했으면 하는 수업 요소를 각각 꼽았다.

박 씨는 교수자의 설명을 통해 철학자와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다루는 철학자나 철학적 개념, 주요 논점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빈 씨는 토론과 발표를 꼽았다. 그는 “교수님마다 수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최소한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는 공통적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씨 역시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1학기 인가탐을 수강한 황영석(전자공학 2021) 씨도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씨는 “글쓰기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활동”을 꼽았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다룬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자 이기현(정보디스플레이학 2024) 씨는 “교수와의 질의응답”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으면 하는 과정으로 꼽았다. 그는 “어려운 주제를 두고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비슷한 나이의 학우들의 의견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방향의 깨달음을 얻을 기회”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더 나은 시민공동체와 자신의 성숙에 대한 고민이 남는 수업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사진 = 대학주보 DB)

교실 안팎에서 배우다 후마 교양수업의 여러 방식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동일한 교과를 여러 교수자가 담당하는 필수교과에서는 분반마다 공통된 교육목표를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하다. 반면 필수교과 밖의 후마 수업에서는 교과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업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신문은 토론과 실습, 현장활동을 수업에 활용하며 교양교육을 실천하는 교수들의 수업을 살펴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들어봤다.

영상하고 토론하고 만들고 배움을 직접 해보다

국제캠 후마 정재원(여성학) 교수의 배분이수교과 ‘마음챙김과 비폭력대화’는 체험·실습형 수업으로, 이론을 학생들의 경험과 연결하고 있다. 학생들은 호흡명상과 소리명상, 먹기명상 등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나눈 뒤 다시 이론과 연결한다.

정 교수는 수업 내용이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삶의 도구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형 수업도 있다. 서울캠 후마 안병진(사회학) 교수는 ‘SF영화와미래정치’와 ‘문명전환기퀀텀리더십’에서 수업의 70% 이상을 조별 토론으로 운

영한다.

SF영화와 책, 뉴스 등을 AI·공동체·기후위기 문제 등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한다.

안 교수는 “더 나은 시민공동체와 자신의 성숙에 대한 고민이 남는 수업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강의실 밖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다

지역과 도시 자체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현장·프로젝트형 수업도 있다. 우대식(정치학) 교수의 ‘사회혁신학기제’에서 학생들은 제주와 영암 등에서 한 학기 동안 머물며 주민·상인·공무원 등을 만나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기획한다.

우 교수는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 전달보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교한 질문과 피드백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성일(사회학) 교수의 계절학기 ‘케이팝으로 사운드맵 그리기’ 역시 프로젝트기반학습(PBL)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흥대·이태원·성수동 등을 직접 찾아 K-pop과 장소의 관계를 조사해 음악지도를 만든다. 학생들은 세 차례 현장에 나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시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간다.

수업 방식이 다르면 필요한 조건도 달랐다

교수들은 수업방식에 따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체험·토론형 수업은 학생 간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교수자가 개별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적정 수강인원이 중요했다.

정 교수는 현재 60명인 수업의 적정 규모를 약 30명으로 봤다. 안 교수 역시 “25명이 넘으면 맞춤형 코칭이 어려워지고 60명 이상에서는 소규모 심층토론이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창작형 수업에서는 결과물을 직접 만들고 외부와 공유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백 교수는 “재료비·전시 관람비 등 실습비를 현실화하고 학생 창작물을 정례적으로 전시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창작은 발표와 공유를 통해 비로소 완결된다”고 말했다.

현장·프로젝트형 수업은 강의실 밖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이를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75분 수업에서는 현장활동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빠듯하고 다음 수업까지 간격이 생겨 흐름이 끊기기 쉽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사회혁신학기제를 확대하려면 교수 한 명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을 맡을 ‘전문 조교 인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 종합

가을 무대 향하는 축구 · 농구 · 야구, 막판 스퍼트 돌입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2026년 KUSF 대학스포츠클럽 U-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학교 축구·농구·야구부가 플레이오프(왕중왕전)을 준비하고 있다.

축구부는 U리그 3권역에서 조 2위를 기록하며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상대는 현재 승점 3점 차이로 조 1위인 아주대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승점에서 아주대와 동률을 이루는 만큼, 조 1위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득실 차를 뒤집을 만큼의 큰 승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패할 경우, 조 3위인 명지대와의 승점 차이 3점, 득실 차는 2점 차에 불과해 최종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1위 도전과 동시에 현재 순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현재 선수단 인원이 22명에 불과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지만, 선수들 역시 조 1위와 우승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다”며 “앞선 맞대결에서 패한 아주대를 상대로는 상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시즌 축구부의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며 “후회없이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

했다.

농구부는 안정적인 위치에서 시즌 후반기를 맞이한다. 현재 12승 2패라는 성적으로 U-리그 2위에 올라 있으며, 정규 리그는 6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플레이오프 진출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정규리그 2위 자리를 끝까지 수성할 경우 플레이오프 8강과 4강 두 경기를 모두 홈에서 치르는 이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의 순위 싸움이 중요하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상승세의 비결로 ‘이타심’을 뽑았다. 김 감독은 “4학년 고참들이 개인 욕심을 버리고 팀을 위한 것은 일을 자처하며

를 만들었다”며 “이러한 행동들이 팀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불어 넣어준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균관대, 중앙대, 고려대와의 초반 3연전에서 최소 2승 1패를 거두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현재 성적에 만족한다면 제자리걸음이기에 플레이오프 결승 진출까지 한 단계씩 거침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야구부는 권역 예선 B조에서 조 5위로 왕중왕전행 막차를 탔다. 가을 무대에 어렵게 합류했지만, 지난 3일 김포대와의 25강전에서 4-1로 승리하며 16강 토너먼트에 안착한 상태다.

야구부 최태원 감독은 “올해 전체가 아쉬웠다”며 험난했던 전반기

를 돌아봤다. 이어 “원인을 되짚어보니 선수들이 아니라 나의 선수 운영 방식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자가 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반성은 25강전의 ‘믿음의 야구’로 이어졌다.

최 감독은 “투수가 연달아 폭투를 2개 던졌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꿨겠지만 계속 밀고 나갔다”며 “선수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또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매 대회 항상 우승을 생각하고 임한다”며 “선수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도전적인 마음으로 경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국교류전과 함께한 동아리 박람회
서울캠은 ‘제1회 동아리 연합축제’ 열려

조천호 cjsgh1026@khu.ac.kr

양캠에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동아리 박람회와 설국교류전이 개최됐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서울캠 37개, 국제캠 43개의 부스를 비롯해 포토 부스, 푸드트럭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려졌다. 특히 서울캠에서는 ‘환희’를 컨셉으로 아티스트 공연과 주점을 더한 ‘제1회 동아리 연합축제’가 진행됐다.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김현준(관광학 2024) 회장은 “기존 동아리 박람회만으로는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축제 규모를 키워 동아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국제캠 동아리 박람회는 ‘하나의 Khord’ 컨셉으로 진행됐다. 국제캠 총동연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회장은 “‘Khord’는 화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Chord’에 경희대를 상징하는 ‘KH’를 결합한 단어”라며 “이번 행사는 하나의 동아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동아리가 함께하며 화음을 이루는 행사”라고 말했다.

청운관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캠 동아리 박람회는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로 가득했다. 펜싱 동아리 ‘PRIME’부스에서 만난 노주연(스페인어학 2019)씨는 “졸업 후에도

동아리 박람회에 힘을 보태고자 찾아왔다”며 “펜싱을 비롯한 체육 동아리는 초보자가 진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초부터 친절히 알려주는 만큼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캠 동아리 박람회는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안종현(전기전자공학 2025) 씨는 “나이가 좀 있는 상태로 작년에 입학해서 학교생활을 잘 못 즐겼다”며 “올해는 시간도 좀 남고 학교생활을 즐겨보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KUCO’에서는 동아리 소유 관현악기를 가져와 학생들이 직접 악기 연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KUCO 이찬화(기계공학 2020) 단장은 “홍보를 위해 작곡가 이름 맞추기 등 퀴즈와 악기 체험을 준비했다”며 “처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과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열린 설국교류전은 양캠 총동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앙동아리 행사다. 이번 설국교류전의 주제는 ‘하나의 울림’으로 체육 부문과 공연 부문으로 이뤄졌다. 친선경기가 시작되기 전 양캠의 응원단에서 합동응원제가 진행됐다. 국제캠 응원단 ‘컬스라’ 나수민(스페인어학 2025) 응원단장은 “설국교류전만큼 하나되는 마음을 담아 응원을 이어갔다”며 “응원단



국제캠 동아리박람회 현장,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KUCO’ 부스에서 학생들이 악기 연주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권도연 기자)

원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학우들이 하나되어 함께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다”고 말했다.

1일차에는 국제캠에서 체육 부문 친선경기가 진행됐다. 축구 경기에서는 국제캠 ‘AMFC’가 서울캠 ‘고향대표팀’을 상대로 4:1로 승리했다. 야구 경기에서는 서울캠 ‘BRAVES’가 국제캠 ‘경희라이온스’를 10:0의 성적으로 승리했다. 농구 경기는 첫 번째 경기에서 국제캠 ‘ZONE’이 서울캠 ‘REBOUND’을

53:41의 성적으로 승리했으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서울캠 ‘농구’가 국제캠 ‘SNAP’을 39:25로 승리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국제캠 ‘러버스’가 서울캠 ‘KUTA’를 상대로 6:4로 승리했다.

2일차에는 서울캠에서 공연 부문 친선경기가 진행됐다. 보컬팀 경기에서는 국제캠 ‘바람개비’와 서울캠 ‘발라드림’이, 밴드팀 경기에서는 국제캠 ‘탈무드’와 서울캠 ‘NAKED’가 맞붙었다. 현장 투표를 통해 국

제캠의 ‘바람개비’와 ‘탈무드’가 우승을 차지했다.

바람개비 이호준(산업경영공학 2021) 회장은 “발라드림도 너무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부원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덕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탈무드 김현석(화학공학 2025) 회장은 “부원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줘서 얻은 결과라 더 값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

《INTER-ACTION: 힘의 대화》 전시

김정우 기자 jwkim012506@khu.ac.kr

【서울】우리학교 미술관 KUMA (미술대학 4층)에서 미대와 국민대 자동차도빌리티대학이 협업한 《INTER-ACTION: 힘의 대화》 전시가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미대 노진아 교수와 우리학교 미대 조소과 학생들 12명과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학생들 그리고 외부 작가 12명이 참여하는 공동 전시다. 양교 학생들이 하나의 작품을 공동 제작하는 방식이 아닌, 각자의 전공을 확장한 결과물을 한 곳에 모아 선보이는 형태로 구성됐다. 공학과 예술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존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공학적 메커니즘과 동력 요소를 작품의 주요 매체로 끌어올렸다.

전시를 지도한 미술대학 노진아 (예술공학) 교수는 “기술을 배우는 자동차공학과 학생들은 드로잉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는 조소과 학생들이 뉴미디어를 작품에 결합해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또한 “실제로 필드

에서 활동하는 키네틱 작가분들이 참여하니까 학생들이 작품 출품에서 겪는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실제 전업 작가분들을 만나고 작업 태도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장에서는 기계적 구조와 미술적 사유가 결합된 다양한 입체 및 키네틱아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한 소중환(조소학 2021)씨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신도시가 가지는 불완전함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다”며 “비어 있는 상가건물에서 레퍼런스를 얻어 골조나 전선을 드러나게 설계하고, 코딩과 아두이노 같은 공학적 요소를 통해 전구의 깜빡거림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물을 거리두고 볼 기회가 잘 없는데,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면 객관적으로 작품을 볼 기회가 생긴다”며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좋은 영감이 되는 것 같다”고 전시 소감을 전했다.

방문자 허석우(사회학 2025)는 “친구가 전시를 한다고 하여 응원차 방문했다”며 “기계적인 요소를 조소로 표현한 것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소중환(조소학 2021)씨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기자)



남북한 문학을 연구해온 오태호(문학) 교수는 지난 15일 『경계를 넘는 상상력』을 출간했다.

(사진 = 김민영 기자)

남북한 문학을 한 공간에

『경계를 넘는 상상력』 출간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지난달 15일 남북한 문학을 하나의 비평 공간에 올려놓은 『경계를 넘는 상상력』이 출간됐다. 국문학자이자 20여 년간 남북한 문학을 연구해 온 오태호(문학)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분단의 경계를 넘어 평화로 나아갈 길을 묻는다.

오 교수는 앞서 『문학으로 읽는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문학을 상상하다』를 통해 북한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해왔다. 앞선 두 책이 학술 논문을 모은 중량감 있는 연구서라면, 『경계를 넘는 상상력』은 남북한 문학 개별 작품에 대한 서평을 중심으로 보기 쉽게 구성한 대중 비평집이다. 오 교수가 2017년부터 격월간지 『민족화해』에 연재한 글을 비롯해 총 26편의 서평을 엮었다. 오 교수는 “남북의 교류가 막혀 있더라도 문학 안에서만큼은 분단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자는 의도에서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책은 총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12편의 남한 문학 작품을 통해 분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폈다. 김훈의 『명태와 고래』는 분단 시대를 살아간 월남민 어부의 삶을 그리며, 김연수의 『밤은 노래한다』와 노희준의 『킬러리스

트』는 1930년대 항일운동의 기억을 불러냈다.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한 작품도 눈에 띈다.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장강명의 『우리의 소원은 전쟁』, 박초이의 『강제퇴거명령서-2039년 평성』 등은 북한 체제의 붕괴나 통일 뒤에 이어지는 혼란을 그려냈다.

2부는 북한 문학 10편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일상과 욕망을 읽어냈다. 백남룡의 『뗏목』에서는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의 삶을, 럽예성의 『사랑하노라』와 객금철의 『선보는 날』에서는 연애와 결혼을 둘러싼 개인의 감정을 살폈다. 아울러 지도자를 인민을 보살피고 사회 발전을 이끄는 존재로 그리며 ‘수령형상문학’ 또한 2부에서 다룬다. 김하늘의 『들꽃의 서정』과 주설웅의 『소나무』 등을 통해, 지도자의 인민 사랑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려는 욕망이 현재 문학 작품 속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분석했다.

3부는 남북한 문학을 직접 비교하고 한반도 밖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1장에선 남북한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랑과 뿌리, 혈연의 의미를 비교했다. 2장에선 반디의 『고발』을 통해 북한 사회의 억압적 현실을 살피고, 요나스 요

나손의 『책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과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서는 제3국 등 외부의 시선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이주 역사를 바라봤다.

『경계를 넘는 상상력』은 주로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을 다루며, 특히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0년대 이후 남북한 문학에 주목했다. 이는 동시대 주민의 삶을 살피고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한국전쟁과 항일무장투쟁 등 역사적 기억들이 오늘날 남북한 사람들의 삶과 인식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짚어냈다.

오 교수는 문학을 “금기와 위반이 가능한 장르”라고 설명했다. 문학은 반어와 풍자, 역설을 통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수많은 가능성을 질문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은 책을 관통하는 ‘다원주의적 상상력’과 맞닿아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체제를 강요하는 데서 벗어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한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태도다.

오 교수는 “여러 종류의 나무와 풀이 어우러져야 생태계가 안정되듯, 한반도의 미래 역시 하나의 답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0 문화

세계적인 대학 캠퍼스 청사진을 밝히다

김희찬(경희기록관장)

경희의유산⑩
『우리대학 최초 마스터플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피난지 부산에 있던 많은 대학들이 서울로 환도하는 정부를 따라 올라가고 있을 때, 서울에 교사가 없었던 우리 대학으로서는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동광동 가교사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 동대신동에 새로운 가교사를 완공(1953.3.20.)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동대신동 가교사를 떠나 서울로 이전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에 찬 고민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1953년 8월 경,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 서울 이전을 최종 결정하고, 시급히 교지 물색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부지 선정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대학 건설」에 걸맞는 규모가 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지 위에 창학이념과 우리의 미래 지향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지금의 고항산(천장산) 자락이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

시간을 거슬러 1953년 고항산 일대를 살펴 보면, 이곳은 지금처럼 풍광이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다. 단지 채석을 위한 조그마한 길과 초가 몇 채가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산은 이미 벌거숭이 황무지였으며 잡초마저도 거의 자랄 것 같지 않은 메마른 땅이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황량한 자연환경이 오히려 빈 백지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형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입체적이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 수 있겠더라는 역발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고항산 중턱에 있는 청운대에 올라 이 고항산 자락에 펼쳐질 대학원(大學園) 건설을 구상하였고, 거칠고 넓은 무(無)의 대지 위에 건설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 대학이 위치한 고항산 자락을 보면, <사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항산 정상부 능선이 있는데, 이 능선 안쪽이 바로 우리 대학의

부지이다. 또한 고항산 정상부 능선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주능선이 있고, 그 주능선 끝자락에 연산군 어머니 폐비 윤씨의 능인 회릉(懷陵, 1969년 10월 25일 서삼릉으로 이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우리 대학은 이 주능선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공간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주능선을 경계로 동쪽은 강학공간, 서쪽은 자연녹지 공간으로 구성하고, 일단 강학공간을 중심으로 최초의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연녹지공간인 서쪽부분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 신선이 사는 선계(仙界)인 선동호(仙洞湖)를 축조했고, 이 계곡에 '신선들이 와서 거문고를 켜다'라는 뜻의 선금교(仙琴橋)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강학공간인 동쪽부분은 대학의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 직후인 1953년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즉, 1953년 11월 24일 '천년 이상 가는 본관과 캠퍼스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뒤이어 12월 20일에는 본관 석조전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다. 1953년부터 설계되기 시작한 1차 마스터플랜은 4년제 종합대학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1954년 12월 28일에 최종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년제 종합대학 설립 인가(1955.2.28.) 이후,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간 조정 및 확대, 그리고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마스터플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 초엽에 이르면, 2차 마스터플랜인 「경희대학교 교사분포전경도」가 최종 완성되었던 것이다.

캠퍼스 공간 배치를 보면, 고항산을 배경으로 그 아래 가장 중심 건물인 본관 석조전을 배치하고, 그 남쪽에 교시탑과 정문으로 이어지는 남북 기본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교시탑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십자대로를 만들고, 이 십자대로를 중심으로 건물들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캠퍼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고항산 주능선 안쪽을 따라 흐르는 개천을 정비하여 배수로를 설계함과 동시에 이곳에 여러 개의 다리(훗날 황궁교, 가령교, 청운교-



① 고항산 정상부 능선과 회릉으로 뻗어 내려오는 주능선(1961년도 사진) ② 1차 마스터플랜(1954년 12월 28일) ③ 2차 마스터플랜(1960년대 초엽)

대성교로 명명)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배치는 우리나라 도성 건축 방식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간배치가 가능했던 것은 고항산 일대가 처음부터 빈 백지와 같은 황무지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1차, 2차 마스터플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본관 앞 분수대 정원의 모습이다. 즉, 본관을 완공한 결과, 의외로 고항산이 너무 높게 느껴져 오히려 본관이 작아 보이는 듯한 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관을 좀더 크게 보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 결과로 지금 본관 앞 분수대를 만들면서 그곳의 땅을 아예 파버리게 되었다. 즉, 땅을 파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본관 건물이 높아져 보이게 되는, 그래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크고 육중해 보이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

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1차, 2차 마스터플랜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현재 청운관 자리에 설계된 노천 풀장, 본관 서쪽에 있는 교회와 대학연현대 설치 계획 등이었다. 이 설치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설치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이유만큼은 지금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캠퍼스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인간교육과 정서교육이었고, 이를 위해 공원 속의 대학을 건설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건물 건축과 발맞추어 자연환경 미화에도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캠퍼스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육은 환경을 기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반영하고 있

었다.

즉, 자연과 인간 관계를 중시하여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에서 살자」, 「자연에서 배우자」라는 모토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연주의 캠퍼스 건설 의지가 마스터플랜에 잘 녹아 들어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처럼 우리 대학 캠퍼스는 1953년부터 시작된 1차 마스터플랜, 1960년대 초엽에 완성된 2차 마스터플랜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캠퍼스 건설과 공간 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위한 내적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1960년대에는 해외 대학 자매결연 협약, 세계대학총장회의 개최 등 글로벌 공공협력을 통한 세계 속의 경희를 적극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위한 외적 역량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오피니언

11

사설

또 터진 보증금 미반환, 개인 책임 어디까지

최근 회기동과 이문동에서 임대 사업자 이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신문이 파악한 경희대 피해 학생 사례만 10건에 이른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한 피해자는 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지만 1년 7개월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을 연장하고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는 법원에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신문은 지난 2024년에도 회기동과 이문동 일대에서 발생한 임대인 김 씨 일가의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 공인중개사가 “터질 사람이 또 있다”고 했던 경고는 2년 뒤 현실이

됐다. 같은 동네에서 다른 임대인을 상대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에게 자취는 선택이 아니다. 서울캠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60만 원을 웃돌고, 보증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학생에게 주거비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방에서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학생에게 남는 것은 빚과 불안일 것이다.

반복되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단순히 세입자 부주의로 돌리기도 어렵다. 우리신문이 만난 피해자 B 씨와 C씨는 계약 당시 신탁등기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탁등기는 일반 학생이 계약 과정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유권과 임대차계약의 관계,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특약의 의미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2024년 7월 강화됐지만, 핵심적인 권리관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실제 계약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학생에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조심하라”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을 받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특별법의 보호 밖에 놓인다.

우리학교 피해자들도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인

에게 반환을 독촉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개정하고 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사후구제와 예방책을 마련해온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증금이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예방책과 함께 피해자가 제도의 보호망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을 개인 간의 신뢰와 분쟁 해결 능력에 맡겨두는 한, ‘터질 사람이 또 있다’는 경고는 언제든 또 다른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개별적으로 운용하다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세시봉

또다시 딥페이크

도은오 기자
eunhdo@khu.ac.kr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했다. 1학년 재학생 A 씨가 같은 학과 및 타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합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인정보까지 유포한 탓에 피해자는 특정 가능한 상태로 남게 됐다.

딥페이크 범행의 끔찍함은 면식비율이 높다는 데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함께 답소를 나누던 지인이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통의 범행들과 달리, 딥페이크는 주변의 소문으로 피해자가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치심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사건 또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은 이미 무거워진 상태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 자체를 반포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다.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47.17%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범’과 ‘동종 전과 없음’이 주요 양형 사유였다.

생성형 AI와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동안에도 법정의 판단은 여전히 ‘초범인가’에 머물러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남기는 것은 삭제되지 않은 영상물만이 아니다. 대학 공동체의 신뢰까지 무너뜨린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SNS 사진을 조심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사진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범죄의 재료로 삼는 사람과 그것을 소비하는 환경에 있다. 법이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일은 사회의 몫이다.

대학이 해야 할 일도 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와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한지, 피해자 보호와 삭제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다음 피해자가 캠퍼스에서 나오기 전에 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모두의 운동장을 위해

잔디가 깔리고 나면

곽승윤

ksymickey05@khu.ac.kr



우리신문은 지난 4월 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방학이 끝나면 인조잔디가 깔린 새 운동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공사는 예상보다 늦어졌고, 취재 과정에서 학교와 용인사가 사업 조건을 두고 이견이 불거진 사실을 알게 됐다.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용을 두고 절충안이 오가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조잔디 조성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천연잔디로 이루어진 대운동장은 그동안 관리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했다. 오랫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대운동장 환경이 나아진다면 구성원들은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던 축구부가 홈구

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제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와 용인사가 각각 3억 5천만 원을, 대학이 약 4억 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대운동장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된다.

요일에 상관없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무료로 개방되며, 주말과 공휴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외부 단체 대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배출, 화장실 사용, 소음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학생들의 이용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외부 이용자도 불편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원이나 시설 훼손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대운동장은 학생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만평 완공 이후의 과제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12 르포

캠퍼스 공간을 채우는 관재팀의 하루

“더 좋은 비품, 더 좋은 강의실 만들어지길”

김수인 기자 windsnow07@khu.ac.kr

새 학기 깨끗해진 강의실과 반듯한 새 책상, 당연한 풍경 너머에는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이들의 노고가 녹아있다. 무더운 8월의 아침, 우리신문 김수인 기자가 청운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누비는 서울캠 관재팀의 생생한 일상을 따라가 봤다.

공간을 채우는 세심한 손길

지난달 6일 오전 10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청운관 내부. 푹푹 찌는 열기와 매서운 드릴 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사이로 서류철을 든 관재팀의 발걸음이 바쁘게 이어졌다. 공사 현장으로 끝없이 들어오는 책상과 의자 속에서 서울캠 관재팀 장식민 팀장은 청운관 작업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울캠 관재팀은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원은 적지만 이들의 업무 범위는 넓다. 이들은 교내에 도입되는 비품의 등재부터 유지 관리, 폐기까지 집기의 전 생애주기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공사 현장 검수는 물론, 학교와 학생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물품 지원과 설치까지 도맡는다. 강의실부터 축제 현장에 이르기까지, 캠퍼스 구석구석 관재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관재팀은 톱니바퀴처럼 세심하게 움직인다. 공사 시작 전 교탁, 컴퓨터 등 기존 집기를 회수해 폐기하거나 창고로 옮겨 공간을 비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둘러 점검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집기 원상 복구와 함께 최종 검수에 나선다. 새 공간을 채우는 비품의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이다.

장 팀장은 공사 현장에 들어온 책상, 의자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그리고 편리성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둥글게 마감된 책상 모서리, 새로 바뀐 콘센트 형태,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립한 전선 등 현장 디테일마다 학생들을 배려한 흔적이 볼 수 있었다.

현장으로 향하는 땀방울

공사 현장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분진으로 공기가 탁한 데다, 공사가 한창이던 8월엔 폭염까지 기승을 부렸다. 게다가 공사 기간 동안 냉방 장치 배선 공사가 함께 진행돼 안전상의 이유로 중앙 냉방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덥고 습한 열기가 가득했고, 체감온도는 39도에 육박했다. 땀범벅이 된 채 현장을 살피던 장 팀장은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이라며 오히려 작업자들을 염려했다.

공사 막바지이던 지난 29일에도 관재팀 직원들은 이른 아침 7시부터 각각 공사 현장을 찾았다. 매일 같이 일찍 발걸음을 하는 이유를 묻자 장 팀장은 “공사 현장이 눈에 밝힌다”며 “학생들이 사용할 공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만 바랄뿐”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관재팀 안전형 차장 역시 “중요한 건 학생들의 공부 환경”이라며 “더 좋은 비품, 더 좋은 강의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마음을 보냈다.

관재팀의 하루 일과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에 맞춰 움직인다. 대형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다가도 대동제나 학위수여식 등 교내 행사가 다가오면 지정된 일정에 맞춰 집기를 설치하고 철거해야 한다. 교내 어딘가에서 비품이 고장 나거나 폐기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역시 이들의 일이다.

장 팀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공사나 행사 일정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0분 가량의 짧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단과대학의 검수 요청과 비품 문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 와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

공간과 마음을 잇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은 비단 공사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창고를 지키며 현장 지원을 도맡는 관재팀 임경열 계장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집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품의 수거와 보관까지 담당한다.

임 계장은 가장 힘든 작업으로 불용 의약품 냉장과 회수를 꼽았다.



① 리모델링을 앞두고 청운관 앞에 새로운 의자와 책상이 가득하다. ② 지난달 31일 최종 검수 이후 강의실의 모습이다. (사진=김수인 기자)

위험한 약품이나 실험 장비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안전에 대한 부담감이 유독 크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해주거나, 행사나 실험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임 계장은 “행사 준비를 할 때에도 비품 처리와 관련한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며 분주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몸은 고되고 일정은 쉴 틈 없이

흘러가지만, 관재팀원들이 손에서 장비와 관련 서류를 놓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고된 순간 뒤에 찾아오는 보람 때문이다. 장 팀장은 “검수를 마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는 상상을 할 때 가장 보람있다”며 “학생들이 기쁘게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계장 역시 “학생들 행사에 필요한 무거운 책상을 옮겨줬었는데,

한 학생이 남아서 비타민음료를 주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청운관에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새 책상과 의자가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에게는 그저 새롭게 단장된 강의실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현장을 오가며 책상과 의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폈던 관재팀의 시간이 쌓여 있다.